

'코로나 적자 누적' 서민의 발 광주 마을버스 멈춰선다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까지 75대 중 61대 운행 중단 예고 하루 3만명 이용 시민 불편 우려

광주 도심 구석구석을 누비며 '대중교통 약자의 발'이 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경영난(광주일보 2021년 10월 8일자 5면)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운행을 중단한다.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도심을 운행해 왔다는 점에서, 주 이용객인 서민과 노약자 등이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사회에선 그동안 마을버스 업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던 광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역 내 5개 마을버스 업체(11개 노선 75대) 중 4개 업체가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휴업하겠다고 관할 자치구 등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예비 차량과 이미 운행 중단된 차량 20대를 합해 60여대(80%) 정도가 휴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 일대를 오가는 1개 업체, 14대는 일단 기존처럼 운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 평균 승객수는 하루 평균 2만5000~3만명으로,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50% 수준에 이른다. 이 점에서 대규모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마을버스가 운행중단을 결정한 것은 매일 쌓여가는 누적 적자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운영비를 감

당하지 못하고, 업체 대표까지 직접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있지만 운행할 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마을버스 적자액은 16억 4000만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수익은 30% 가까이 줄었다. 코로나 이전 60억원 가깝던 합계 수익도 4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마을버스의 연간 대당 지원금은 740만원에 불과하다. 정규 노선 시내버스(대당 6000만원)의 8분의 1 수준이다. 연간 전체 업체의 지원금을 모두 합해도 5억 7000만원이다. 이마저도 시내버스와 연동한 환승손실금과 구청 시설보조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도시철도 모두 똑같이 대중교통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마을버선만 자치

구에서 관리·감독·지원을 하는 탓에 지원규모는 열악하다. 나머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는 광주시에서 직접 지원·관리한다.

광주시는 마을버스 지원에 공감하면서도,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적자액을 감당하기에도 버겁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광주시의 교통관련 적자보전 예산은 제2순환도로 290억원, 도시철도 1호선 626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1156억원 등 2072억원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광주의 마을버스 운행규모도 초라하다. 수도권은 인구 1만명당 1.4대, 광주는 0.52대다.

광주마을버스운송조합측은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운영 적자 지원,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대책과 중장기

적으로 준공영제 또는 재정난도 지원 민영제 등을 건의했다. 또 시내버스 종점(회차지) 공동이용,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지원금 확대 등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 대전 등 일부 자치단체는 마을버스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민영제와 준공영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 2024년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자치구와 관련 대책을 마련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던 광주시도 막상 마을버스의 운행 중단이 현실화하자 당황하는 모습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속한 지원을 위해 입장을 앞당기고 자치구, 업체와 지속해서 협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약무호남 시무독도 특별전 20일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호남대학교 약무호남 시무독도 2021 특별전'에서 박상철 호남대 총장(사진 오른쪽)과 송귀근 고홍근수,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등이 전시된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금형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이용섭시장, 기업 대표와 간담회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평동산단 한국금형산업진흥회에서 주요 금형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금형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금형산업진흥회 박화석 회장과 지역 금형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박화석 한국금형산업진흥회 회장은 "민선 7기 들어 광주시의 지원으로 지역 금형산업이 명실상 부한 핵심 주력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용섭 시장은 "대내외의 불안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금형기업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금형산업이 광주시의 대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면서 "금형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역 금형산업의 기반을 다지

기 위해 완성금형공동물류센터, 하이테크금형센터, 공동활용장비 구축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시는 특히 첨단화·고도화를 통한 스마트 금형산업으로 이미지 변신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과 ICT 기술을 접목한 'IoT 빅데이터활용 금형제작 가치사슬혁신 지원'과 '스마트금형 제조 데이터 활용 혁신기반 구축' 등 금형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일부 수출규제와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물류 효율화 및 공동구매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자체수급 안정화와 원가절감으로 기업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금형산업진흥회는 2004년 설립 이후 금형산업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27개 사업 국비 840억원, 지방비 413억원, 민자 34억원 등 총 1287억원을 투입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은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단계적 일상회복...전남도, 관광객 6천만시대 재도약 나서

안심 체류형 등 5대 추진전략 제시

전남도가 11월 중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6000만 시대 회복 및 외래관광객 유치 50만 달성을 목표로 전남관광 재도약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5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20일 전남도는 22개 시·군,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한국관광공사광주전남지사장, 전남관광협회와 광주전남연구원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관광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는 국내외 관광시장, 정부 정책 방향,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 전남관광

환경을 자세히 분석해 전남관광 재도약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추진전략은 ▲정정 전남 안심 관광 ▲체류형 관광생태계 구축 ▲효과적 홍보마케팅 ▲협업하는 거버넌스 ▲지속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다.

전남관광 재도약 계획은 회복·변화·강화로 단계별로 추진한다. 회복 단계는 전남의 청정 관광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방역과 함께하는 안심여행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변화 단계는 해양, 생태, 문화, 음식 등 전남의 강점을 활용한 관광개발 및 특별상품 발굴로 전남 관광 수요를 촉진하고, 강화 단계는 체류형 기반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행과제는 전략별로 3개씩 총 15개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과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상품 확대, 생태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전남만의 특화 관광지 발굴 홍보, 관광업계 기반 구축지원, 한국도탈관광패키지사업 추진 등이 다.

특히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전남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물려온 관광객은 모든 시군으로 분산 유치하고, 자연생태계에 순응하는 자연친화형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심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군, 관광업계와 지속해서 협력할 방침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中企 지원시책 만족도 최우수 지자체 선정

광주시가 광역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시책 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만족도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7개 광역 자치단체별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을 새롭게 추진했으며, 소상공인 3무(無) 특례보증 등 14차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중소기업에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12개 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단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20일 오전 라마다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 명과 중소기업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간담회에서 ▲에너지밸리산단 공동물류센터 입주 및 지원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구매공시제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구매제도 활용 ▲광주 중소 식자재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소상공인 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령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